

264 - 김성재 - 그한개의별

광복 80주년 기념
2025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제작 기획오페라

차
의
별
보
고
려
도
한
개
의
별
만
안
하
라

2025. 8. 20(수) - 23(토)

목차

Contents

| | | |
|------------|----------------------------------|-----------|
| 인사말 | Greetings | <u>04</u> |
| 시인소개 | Poet | <u>05</u> |
| 작곡가 소개 | Composer | <u>06</u> |
| 연출의 글 | Director's Note | <u>08</u> |
| 줄거리 소개 | Synopsis | <u>09</u> |
| 작품 소개 | Exposition of 264, That One Star | <u>10</u> |
| 무대디자인 | Scenic Design | <u>16</u> |
| 의상디자인 | Costume Design | <u>18</u> |
| 주요제작진 | Creative Team | <u>22</u> |
| 출연진 및 출연단체 | Cast | <u>23</u> |
| 제작진 | Staff | <u>32</u> |

이
육
사
-
교
부
-
동
생
-
제
작
-
기
획
-
오
페
라

차
라
리
보
도
의
말
아
리

광복 80주년 기념 2025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제작 기획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
김성재

264, That One Star
Kim Seongjae

| 개요 | INFORMATION |
|--------------------------|---|
| 작곡 김성재 | Composer Kim Seongjae |
| 대본 김하나 | Librettist Kim Hana |
| 배경 대구, 안동 | Background Daegu, Andong |
| 초연 2024. 10. 18 대구오페라하우스 | Premiere Oct.18, 2024, Daegu Opera House |
| 형식 4막 | Form 4 acts |
| 언어 한국어(국문/영문 자막 제공) | Language Korean(Korean/English Subtitles) |

| 주요 제작진 | CREATIVE TEAM |
|----------|--------------------------------|
| 예술감독 정갑균 | 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
| 지휘 이동신 | Conductor Lee Dongsin |
| 연출 표현진 | Director Pyo Hyunjin |

| 출연진 | CAST |
|--------------------------|--|
| 투쟁 이육사 Ten. 권재희, 노성훈 | Independent army Lee Yooksa Ten. Kwon Jaehye, Rho Seonghoon |
| 문학, 남편 이육사 Bar. 김승철, 제상철 | Writer Lee Yooksa Bar. Kim Seungchul, Je Sangchul |
| 청년 이원록 Ten. 최요섭, 이충만 | Lee Wonrok Ten. Choi Yosub, Lee Chungman |
| 안일양 Sop. 이윤경, 김진솔 | Abn Ilyang Sop. Yi Yunkyoung, Kim Jinsol |
| 윤세주 Ten. 김명규 | Yoon Seju Ten. Kim Myungkyu |
| S 영혼의 벗 M. Sop. 최종현, 김보라 | S M. Sop. Choi Jonghyun, Kim Bora |
| 고경사/우두머리/이육사 동생 Ten. 정진환 | Sergeant Go/Boss/Lee Yooksa's younger brother Ten. Jeong Jinhwan |
| 이육사 형 Bass 전재민 | Lee Yooksa's older brother Bass Jeon Jaemin |
| 이육사 아이 박진서, 김주아 | Lee Yooksa's child Park Jinseo, Kim Jua |

| | |
|----------|-------------------------------------|
| 디오오케스트라 |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
| 대구오페라콰이어 | Daegu Opera Choir |
| 극단 늘해랑 | Theater Company Neulhaerang |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에 오르는 이육사의 별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 갑 군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창·제작한 오페라 김성재의 〈264, 그 한 개의 별〉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해 초연된 이 작품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이원록) 선생의 치열한 삶과 문학을 오페라로 풀어낸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창작물이자 지역이 품은 위대한 인물을 기리는 예술적 헌사였습니다. 당시 관객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성원 덕분에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앵콜 공연으로 그 감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육사는 나라를 잃은 시대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불태워 민족의 정신을 지켜낸 인물입니다. 나약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강인한 신념과 뜨거운 시심(詩心)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외쳤던 그는, 결국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던 하나의 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를 넘어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예술의 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오페라 제작극장으로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사와 인물들을 무대 위에 담아내며 창작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다시 한번 힘써주신 제작진, 출연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육사의 별빛이 관객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별, 이육사

대구문화관·이육사기념관 총괄팀장 이 성 호



민족시인 독립운동가 이육사
출처: 이육사기념관 제공

이육사는 퇴계 이황의 14세손으로 1904년 안동 도산면 원천마을에서 여섯 형제(원기, 원록, 원일, 원조, 원창, 원홍)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첫 이름은 원록(源祿), 두 번째 이름은 원삼(源三)이며, 스스로 활(活)과 육사(陸史)라는 이름을 지어 시와 수필 등 문학작품과 평론에서 필명으로 썼다.

육사의 친가와 외가, 그리고 형제 모두 항일투쟁사에 이름을 남겼는데, 조부 이증직은

진보적 관리로 민족교육에 힘을 썼으며 외가는 독립의병 총사령관 허위의 집안이다. 이육사는 형제들과 함께 어린 시절 조부에게 소학 등 한학을 배우다 보문의숙에서 수학하였다. 이러한 배움은 의로운 가풍과 더불어 젊은 형제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을 터, 시인이었던 육사와 함께 그의 동생 원일은 서화가, 원조는 문학평론가로도 당대에 명성이 높았다. 1920년에 가족이 대구 남산동 662번지(현재 이육사기념관)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으며, 이육사는 이때 서화가 석재 서병오에게 사사하였다. 1921년 부친의 엄명으로 영천군 화북면 오동 안용락의 딸 안일양과 결혼 후, 영천의 백학학원에서 공부하며 교원으로 9개월간 근무하다 1924년 도쿄로 건너가 1년간 유학하였다. 1926년에는 베이징의 중국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귀국 후 대구에서 조양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원기, 원일과 함께 정의부, 군정서, 의열단에 입단해 독립운동을 하였다. 특히 1927년에는 장진홍 의사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되어 형 원기, 동생 원조와 함께 대구형무소(현 대구 삼덕교회 자리)에 투옥되었다. 1년 7개월에 이르는 옥고를 치른 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어 면소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받은 수인번호(264)가 ‘이육사’라는 필명을 쓰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1930년 첫 시(詩) 「말」을 조선일보에 발표하였다. 이후 중외일보와 조선일보의 대구지국 기자로 있는 동안에도 대구청년동맹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배일격문사건 관련자로 검거되어 거듭 옥고를 치렀다.

그 뒤 여러 차례 중국을 왕래하던 이육사는 1932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해 군사 간부 교육을 받았다. 그가 사격에 능하였고, 1934년 경기도 경찰부에 의해 다시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은 사유가 되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는 무장항일단체인 의열단이 설립한 항일독립혁명가 양성소였다. 당시 일제가 작성한 ‘이원록(육사) 소행조서’를 보면 “배일사상, 민족자결, 항상 조선의 독립을 몽상하고 암암리에 주의의 선전을 할 염려가 있음.”이라 써여 있다.

석방된 후 육사는 시사평론 집필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시인 신석초와 『신조선』 편집에 관여하였고 루쉰(魯迅)의 소설도 번역하였다. 이때부터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져 요양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그는 문학과 비평,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에 대한 일제의 감시도 더 매서웠을 것이다.

1943년 봄, 일제의 패망을 예감하며 베이징으로 가 독립활동을 하던 육사는 늦은 가을에 모친과 만형의 소상에 참여하러 귀국했다 검거되어 이듬해 1월 16일 새벽 5시, 베이징 주재 일본총영사관 내의 동창후통(東昌胡同) 1호에서 순국하였다. 독립군 동지이자 친척인 이병희가 시신을 거둬 화장하여 동생 원창에게 전했다. 육사의 유골은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60년 고향 뒷산으로 이장되었고, 2004년 안동시에서 이육사문학관을 건립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그를 기리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육사기념관이 2023년 10월 건립되어 ‘대구사람 이육사’를 조명하고 있다.

* 이 글의 주요 부분은 『이육사 총서』(손병희 주해, 소명출판, 2022)를 참조하였다.

김성재

Kim Seongjae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박사졸업(작곡)
- 제1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 오페라 〈청라언덕〉, 제21회 대구오페라축제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
- 제32회 서울 국제 음악제 가곡과 실내악의 밤 ‘얇은 무의식의 꿈’
-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충격요법을 실험중인 진료실’, 합창곡 ‘대구 희망을 부르자’
- 제41회 대구음악제 〈뉴 르네상스를 위하여〉 ‘푸르름을 향한 두 개의 노래 이중의 죽음, 교목’
- 대구시립교향악단 〈세계를 향한 대구의 소리〉 ‘뉴 사운드 오브 대구 2017’
- 창원시립예술단 창작 뮤지컬 ‘바다의 노래’
- 현) 경북대학교, 창원대학교 출강, 대구작곡가협회 이사, NOVUM C5 회원, 창원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비상임이사

작곡가 노트 Composer Note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은 시인 이육사(본명 이원복)의 삶 일부를 작곡가의 악상 속에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21년 대구오페라하우스 카메라타 연구회에 작곡가로 참가하며 김하나 작가와 약 3년간 함께 작업하였고, 평가위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정 · 보원을 거쳐 2024년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에서 초연되었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기획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 4막으로 구성된 이 오페라는 1막 ‘회고’에서는 투쟁의 길을 걸은 이육사와 영혼의 벗 S의 대화를 통해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2막 ‘흔레’에서는 그의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청년 시절, 안일양과의 결혼을 다룹니다. 3막 ‘육바라지’에서는 문학가이자 남편으로서의 이육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 안일양이 그를 지켜내는 모습을, 4막 ‘이별’에서는 술 없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육사의 고요한 독백으로 ‘투쟁’, ‘청년’, ‘남편’, ‘문학’으로 살아낸 한 인간 이육사의 인생이 음악적 서사로 전개됩니다. 작곡가로서 지난 3년간 정신적 · 육체적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17번이나 형무소를 드나들며 살아야 했던 선생님의 치열한 삶을 음악 언어로 얼마나 담아낼 수 있었을지 감히 자문해봅니다.

자칫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생님의 삶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한 음 한 음에 정성을 다해 작업하였습니다. 작곡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대구오페라하우스 정갑균 관장님과 관계자분들, 카메라타 평가위원님,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물려주시기 위해 술한 고초를 견디시고 마침내 한 개의 별이 되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부디 하늘에서 내내 평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하나

Kim Hana



- 오페라 〈윤심덕, 사의 찬미〉, 〈왕평〉, 〈264, 그 한 개의 별〉
- 뮤지컬 ‘왕의 나라’, ‘선인장 꽃피다 시즌 1, 2’, ‘55일, 형 아우야’, ‘아름다운 청춘’, ‘육신사의 비밀’, ‘벼랑 끝에 선 정약용’, ‘꽃과 나비’, ‘2.28 그날, 오후’, ‘2.28 새벽을 여는 함성’, ‘원효와 요석’, ‘아이소포스’, ‘하늘, 바람, 바다’ 외 다수 뮤지컬
- 연극 ‘호야, 내 새끼’, ‘백마 타고오는 초인이 있어’, ‘별이네 헤어살롱’, ‘돌아와요 미자씨’, ‘숙희의 비밀’, ‘소년 순이’, ‘만간’, ‘부고-백봉죽다’, ‘사발 이도다완’, ‘서울다방’, ‘인연’, ‘이즘마는 달린다’ 외 다수 연극
- 제5회 대한민국 극작 엑스포 ‘4인4색 신진작가’ 선정
- 2012년 나눔연극제 회곡상 ‘호야, 내새끼’, 2018년 대구연극제 금상 ‘사발이도완’, 2019년 대구연극제 대상 ‘백마 타고오는 초인이 있어’, 2020년 울산연극제 회곡상 ‘백봉-죽다’, 제11회 대한민국오페라 대상 〈윤심덕, 사의 찬미〉, 제16회 고나마루향토연극제 은상 ‘사발, 이도다완’
- 현) 문화공동체대가야 대표, 극단 난연 대표

대본가 노트 Librettist Note

필자는 이육사의 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 그의 삶과 꿈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이 시 속 ‘별’은 그저 빛나는 천체가 아니라, 그가 바라던 독립된 조국과 새로운 세상을 상징하지 않을까? 독립군으로 싸우며 동시에 시를 통해 문화를 지키려 했던 그의 예술가적 사명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육사는 명문가의 아들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는 사실이다. 고문과 수감의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그는, 무력만이 아니라 시를 통해 문화적 독립을 이루려고도 했다고 느낀다. 필자는 그 시절 독립군과 예술가들이 단순한 저항의 대상을 넘어, 조국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이육사는 독립군이자 예술가로서, 동시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다. 필자는 그가 가족을 돌보는 일과 독립운동 사이에서 겪었을 내적 갈등을 상상해본다. ‘한 개의 별’은 단순한 시어가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새로운 세상, 독립을 향한 염원의 상징이라고 본다. 하여, 필자는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를 통해 이 작품에 다양한 역할을 하며 살아온 이육사를 담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시는 단순한 저항의 표현이 아닌 그의 삶과 투쟁의 기록이며, 그 속에는 독립군과 예술가들이 남긴 희생과 투쟁의 정신이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창작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 육사의 생애를 통해 나의 과거와 마주하다

연출 표 현 진

인간은 자신의 과거와 함께 살아간다. 현재의 나는 결코 우연히 형성된 존재가 아니다. 오늘날의 나는 그동안 내가 걸어온 모든 노력과 고뇌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릴 것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견디기 힘들만큼 괴로웠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다. 창작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은 단순히 이육사의 일생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왜 민족시인으로, 독립투사로 일평생을 바쳐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살아온 길을 천천히 되짚어본다.

육사에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중 하나는 1923년 발생한 관동대지진 이후 이어진 ‘관동대학살 사건’이었다. 이 학살은 육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킨 엄청난 사건이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낭설을 퍼뜨리며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 수천 명을 무참히 학살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끔찍한 비극이었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억압이 조선인을 향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육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품었을 것이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키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굳은 확신을 가지고 독립투사가 되었으리라. 윤세주와의 인연을 맺으며 독립운동에 더 깊이 발을 들였고 엄청난 고문과 기나긴 옥살이를 견뎌내며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글을 쓰고 사회활동을 이어나갔다.

육사는 전통 문학과 근대 문학의 경계에서 민족 주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자신의 예술로 일제 탄압에 저항했다. 특히, 육사는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시 ‘광야’를 발표했다. 일제의 폭압에 암울한 시기를 겪던 상황에도 조국의 독립을 향한 그의 강렬한 열망을 담은 작품으로 초인이 광야에서 목놓아 노래하며 독립의 날을 꿈꾸는 장면을 묘사해 놓았다. 이 시는 육사가 조국의 독립을 향한 강한 신념을 담아낸 선언이자 우리 민족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남았다.

우리의 남은 여정에 힘차게 나아갈 힘을 발견하는 작품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창작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을 통해 관객들은 육사의 투쟁과 고난을 따라가며 자신만의 삶을 되돌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고 그 과거의 시간들이 현재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과거의 나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 나는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 고통과 후회의 순간들을 견뎌내며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낸 그때 그 과거의 나에게 나는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육사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삶 속 중요한 순간들을 돌아보고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해 주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줄거리 Synopsis

제 1막

형무소 안. 이육사는 죽음을 앞두고 영혼의 벗 S를 통해 자신의 과거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일본 유학 시절, 자경단이 조선인을 무차별 학살한 관동 대지진의 비극적인 광경이 펼쳐진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육사는 독립에 강한 열망을 품는다.

제 2막

결혼식 당일, 독립에 대한 생각뿐인 청년 원록(육사의 본명)은 결혼에는 관심이 없다. 혼인을 거부하는 그에게 신부 안일양이 대차게 한마디 내뱉자, 원록은 오히려 당돌한 그녀의 모습에 강하게 끌리게 되고 둘은 행복한 혼인을 맺는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원록은 의열단 합류를 결심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다.

제 3막 1장

의열단에 합류한 이육사는 동료 윤세주와 함께 독립운동을 펼친다. 그러나 작전 도중 둘은 일본군에게 붙잡히고, 그 과정에서 이육사에게 독립투사로서 큰 뜻을 품게 해주었던 윤세주가 사망한다. 이육사는 잡히는 순간에도 조국 해방을 위한 굳은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 3막 2장

대구 경찰서 안. 이육사를 고문하는 고경사. 독립운동의 단서들을 찾아내기 위해 갖은 고문과 협박을 이어간다.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며 이육사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다. 면회 온 그의 아내 안일양은 이육사와 재회하고, 계속된 고문으로 쇠약해진 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제 4막

지난 과거를 돌아본 이육사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영혼의 벗 S가 알린다. 그에게 과거 이육사들이 찾아와 그와 유쾌한 작별 인사를 나눈다. 예술가이자 독립투사였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이육사. ‘자신이 해 온 일들이 작은 별 하나처럼 빛을 남겼는지’ 자문한다. 그의 유서와도 같은 시 〈광야〉를 써내려간다. 언젠가 찾아올 기쁨의 자주독립을 기다리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다.

광복 80주년 기획 오페라 프리마 델라 프리마 〈264, 그 한 개의 별〉

오페라평론가/단국대 문화예술학과 교수 손수연

별이 되어 돌아온 대구의 유산, ‘264, 그 한 개의 별’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은 오페라를 통해 우리나라와 대구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다 널리 전달하기 위해 대구오페라하우스가 2021년 시작한 ‘카메라타 창작오페라 연구회’의 산물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23년 콘서트 형식으로 파일럿 공연을 했고, 2024년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전막 오페라로 무대에 올랐다.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민족시인 이육사의 삶과 시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제목의 264 또한 그의 수감 번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육사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는 광복 80년을 맞이한 올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이 오페라를 창작한 김성재 작곡가와 김하나 작가는 ‘이육사’라는 이름이 가진 강인함과 고결함, 그리고 그가 남긴 시 한 편 한 편 속에 스며든 절절한 소망들을 무대 위의 음악과 노래로 되살리고 싶었다고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의 문학과 삶, 그 찬란한 생의 흔적을 오페라라는 형식 속에 이름답게 담아내고자 했다고 말한다.

한국 창작오페라의 태동

한국에서 첫 번째 오페라인 베르디의 ‘춘희(라 트라비아타)’가 공연된 지 2년 뒤인 1950년 첫 번째 창작오페라가 등장하였다. 여기서 지칭하는 창작오페라의 개념과 범주는 ‘서양의 오페라와 구분하여, 한국어로 창작돼 공연하는 한국어 오페라’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창작오페라보다는 한국오페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나 일반적으로 창작오페라라고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오페라를 창작오페라로 부르는 이유는 첫째, 서양의 오페라와 구분하기 위함이고 둘째, 서양의 고전 오페라와 비교해 한국에서 새롭게 창작된 오페라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추측된다.

최초의 창작오페라는 현재까지 현재명 작곡의 ‘춘향전’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창작오페라로 안기영의 향토가극 작품이나 작곡가 한형석이 작곡하여, 해방 전 중국에서 공연한 ‘아리랑’을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1950년 발표된 현재명의 ‘춘향전’을 음악적 형식면으로나 공연의 구성면으로 한국 최초의 창작오페라로 보고 있다. 대구 출신 성악가이자 작곡가인 현재명이 최초의 창작오페라를 작곡하여 공연하기까지 우리 음악계에서는 한국 창작오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열망이 있었다.

“.... 4. 우리 聲樂人들의 義務와 나아갈 길

聲樂藝術의 最高峰인 오페라가 겨우 싹 틔울 때, 우리는 이 貴한 싹이 枯死하지 않도록 가뭄에 물을 주고 부는 暴風을 막아 開花하여 많은 結實이 될 때까지 길러 나가야 될 것이다. 勿論 여기에는 財政問題를 無視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도 오페라를 지고 나갈 實力있는 歌手의 배출이 먼저 절실히 요구된다. 좀 더 研究하고 努力하고 연마하여 가진바 素質을 빛내도록 힘쓰는 날에는 적지 않은 좋은 歌手들이 나올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속히 우리의 오페라가 創作되어 우리의 文化를 자랑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야 되겠는데 좋은 歌手 없이는 아무런 명작도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오페라의 結實 與否도 實로 우리 聲樂人의 覺悟와 努力에 달렸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이다.”

한국 최초의 이탈리아 성악 유학생으로 기록되고, 1948년 최초의 전막 오페라인 ‘춘희(라 트라비아타)’를 기획, 제작, 주역, 대본 번역까지 맡았던 테너 이인선은 1949년 당시 클래식 음악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서 오페라가 싹트기 시작한 이 시점에 우리 창작오페라 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것을 표현할 가수들의 역량을 키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 뒤인 1950년 경향신문 3월 21일자 2면 사회면 기사를 보면, ‘春香傳 오페라化 玄濟明씨 努力으로’라는 제목으로 “解放後 各界各層에서 大望中이던 春香傳의 오페라화가 완성되었다.... 중략 오즈음 완성은 보아 五月上旬頃에는 國內에서 먼저 上演하리라 한다”라고 쓰고 있어 전막 오페라가 국내에 소개된 뒤 한국의 창작오페라 혹은 민족적인 특징을 반영한 오페라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명 작곡의 ‘춘향전’은 1950년 5월 일제강점기 부민관이던 당시 서울 국립극장에서 초연됐다. 인기 극작가인 이서구가 대본을 쓰고 유치진이 연출한 이 작품은 원작에서 쓰였던 고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고치고 대중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멜로디로 판소리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5막 6장의 오페라로 만들었다. 오페라 ‘춘향전’은 작품에 나오는 아리아와 이중창이 유행을 하는 등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13일의 공연기간 동안 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니 당시에는 기록적인 흥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6.25 전쟁의 와중에도 피난지 대구 문화극장에서 1951년 7월 다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한국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판소리와는 별개로 철저하게 서양음악 기법을 이용해 작곡되었다. 판소리 ‘춘향전’에 익숙해 있던 관객들은 리듬과 선율이 서양의 음악 형식으로 작곡된 오페라 ‘춘향전’을 처음에는 낯설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장르에 대한 호기심과 익숙하고 쉬운 아리아의 멜로디 등으로 청중의 큰 인기를 얻었다. 한국적 소재와 서양음악 기법의 조화를 추구했던 이 오페라는 원작 악보의 불확실함과 가사의 복잡한 처리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초의 창작오페라이자 이후 수많은 창작오페라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작품으로 꼽을 수 있으며 한국 창작오페라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공연된 오페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명의 ‘춘향전’이 성공적으로 공연된 이후 한국 음악계는 창작오페라를 활성화해 세계 무대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다. 연극연출가 이진순은 1950년 5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오페라 ‘춘향전’ 초연 감상 후기에서 앞으로는 오페라를 조직적인 운동으로 확장시켜 오페라 창작을 왕성히 해 나가고, 창작오페라 작품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진출할 의기를 찾자고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우리나라 오페라 運動은 이제로부터서이다. 이런 意味에서 外國의 優秀한 작품을 公演하는 것도 勿論 좋으나 春香傳을 계기로 創作의 生産을 旺盛히 하여 國際舞臺로 進出할 意氣를 만듯이 가져야 할 것이다.”

1950년 5월 첫 창작오페라를 공연한 한국의 오페라는 이어지는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으로 대부분의 공연예술 활동이 중단되었다. 1962년, 국립오페라단이 창단공연으로 장일남의 ‘왕자 호동’을 무대에 올릴 때까지 우리나라 전체 오페라 공연은 10%대의 낮은 공연율을 보인다. 국립오페라단의 창단공연은 당연히 창작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모되었고, 그 결과 장일남의 ‘왕자 호동’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극적 짜임새나 음악적 흐름은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립오페라단의



1950년 5월 오페라 춘향전 초연 포스터
출처: 한국오페라역사박물관(KOHM) 제공



1951년 7월 대구 문화극장 오페라 춘향전 공연 포스터
출처: 한국오페라역사박물관(KOHM) 제공

창단공연으로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현제명의 1954년 ‘왕자 호동’ 이후 긴 공백기에 있던 우리나라 창작오페라가 모처럼 새로운 작품을 공연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이 갖는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1968년,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창단공연으로 올리며 본격적인 민영 오페라단의 등장을 알린 김자경오페라단은 국립오페라단 위주로 제작되던 흐름을 민영 오페라단과 양분하며, 오랜 시간 우리나라의 오페라 무대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김자경오페라단이 한국 창작오페라로 처음 선택한 것은 1970년, 시민회관에서 공연된 제임스 웨이드(J. WADE) 작곡의 ‘순교자’였다. 재미작가 김은국의 베스트셀러인 동명의 영어소설을 오페라로 만든 이 작품은 소재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현대물인데다가 외국인 작곡가에 의해 작곡되어 주목을 받았다. 외국인이 작곡했지만 우리 국민 정서에 크게 부합하는 소재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가사로 되어있고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다. 또 무조 기법을 사용했음에도 듣는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1950년 첫 창작오페라 ‘춘향전’을 선보인 이래로 7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오페라는 성공적인 한국오페라를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창작오페라를 고유문화의 보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연예술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페라의 순수예술적인 측면은 견지하되, 고유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연예술로 창작오페라의 기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양과는 다른 아시아 창작오페라의 복합적인 특징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7월 대구 문화극장 오페라 춘향전 공연사진
출처: 한국오페라역사박물관(KOHM) 제공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창작오페라의 발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도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대구, 경북 지역의 특색을 담은 오페라를 창작,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작은 이영조 작곡, 김일영 대본의 ‘목화’로 섬유 도시 대구의 특색을 알리며 시작했다. 그 이후, 1907년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국채보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창작된 오페라 진영민 작곡, 최현묵 대본 ‘불의 혼’(2006)은 개막 첫날 좌석 1천 400여석이 모두 채운 것을 비롯해 사흘 동안 객석 점유율이 79%를 기록하는 성공을 거뒀다. 이어서 경북 안동에서 발굴된 미라(남편)와 그 시신의 품에서 나온 아내의 편지, 그리고 미투리 한 켄레를 소재로 세월을 초월한 이들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조성룡 작곡, 조두진 대본 오페라 ‘원이엄마’(2009), 제1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이자 축제 개최 10주년을 맞아, 대구를 빛낸 작곡가 박태준의 삶과 음악, 사랑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한 김성재 작곡, 최현묵 대본 오페라 ‘청라언덕’(2012) 등을 선보였다. 박태준을 비롯한 대구 출신 작곡가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청춘을 그려낸 이 작품은 제1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뽑은 오페라 대상을 수상하면서 제1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도 메인작품으로 공연됐다. 대부분의 우리 창작오페라가 초연 이후, 재공연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초연의 호평이 재공연으로 이어지며, 작품의 완성도를 올리는 선순환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15년 제1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는 진영민 작곡, 이경식 대본 오페라 ‘가락국기’가 무대에 올랐다.

고려 문종 때 편찬된 ‘가락국기’는 일본 최초 왕국의 뿌리가 가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기록된 문헌으로, 완전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오페라 ‘가락국기’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가락국기’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가락국기’를 찾아내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린 ‘독도인더헤이그’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독특한 작품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청라언덕’과 같이 창작오페라를 재공연해서 성공으로 이끈 사례는 또 하나가 있다. 2009년에 초연한 오페라 ‘원이엄마’를 보완해서 새롭게 탄생시킨 ‘능소화, 하늘꽃’(2017)이 그것이다. 음악 또한 가사의 의미와 인물의 감정을 따라 설득력 있게 편곡돼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제15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초연됐으며 2019년 헝가리 국립 에르켈 극장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2018년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는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영남오페라단이 함께 제작한 진영민 작곡, 김하나 대본 오페라 ‘윤심덕, 사의 찬미’를 초연했다. 젊은 나이에 연인과 함께 바다에 투신한 한국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의 짧은 생애와 조국과 예술에 헌신한 주변 인물들 이야기를 1921년 7월 윤심덕과 연인 김우진, 홍난파, 채동선, 홍해성 등이 독립운동기금 모금을 위해 대구좌(대구극장)에서 공연한 실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약령시, 계산성당 등 대구 근대 모습을 무대에 담고 윤심덕 대표곡 ‘사의 찬미’를 비롯해 시인 이상화 시 ‘대구행진곡’, 김우진 시 ‘불빛’ 등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한 음악을 선보였다. 초연 당시 전석 매진에 가까운 성공을 기록한 것은 물론 2019년 제11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을 수상했다.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

앞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는 우리 창작오페라의 발굴과 발전을 위해 지난 20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1년 시작된 ‘카메라타 창작오페라 연구회’ 또한 같은 맥락이다. 창작오페라에 대해 지난 20년간 축적돼 온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신념과 제작 노하우가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도다. 이미 오페라 ‘목화’, ‘불의 혼’, ‘청라언덕’ 등 대구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콘텐츠 등을 오페라의 소재로 활용해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든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카메라타 창작오페라 연구회’를 통해 그간의 역량을 집결시켰다. ‘카메라타 창작오페라 연구회’에서는 2021년 이후 4년간 여러 차례 걸친 쇼케이스와 작품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대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민족시인 이육사를 소재로 한 창작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을 최종 선정했다. 제1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이자 그해 오페라 대상을 수상한 ‘청라언덕’의 작곡가 김성재와 2019년 대한민국오페라대상을 수상한 ‘윤심덕, ‘사의 찬미’의 대본가 김하나의 작품으로,

대표적인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의 생애를 창작오페라로 만들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20주년 기념 작품이기도 한 ‘264, 그 한 개의 별’은 대구 근대역사를 대표하는 인물 이육사의 뛰어난 문학적 업적과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오페라 안에 진지하게 녹여내려 한 오페라다.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육사를 각각 투쟁하는 청년, 문학가이자 한 여인의 남편, 의열단원 등 다양한 캐릭터로 그려내고 있으며 오페라 장면의 배경이 되는



장소 또한 현재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있는 ‘대구형무소’가 등장하는 등 지역과 강한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본명이 이원록인 그의 호가 대구형무소에 수감 되었을 당시 수인번호인 264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육사는 대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별과 같은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작곡을 맡은 작곡가 김성재는 ‘이육사는 거대한 분인데 이분을 표현하는 게 나로선 영광이지만, 잘못해서 누가 되면 어쩌나 염려도 되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한 이 오페라는 조성 음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보편적 음악언어로 객석의 공감을 이끌어가고자 했다고도 밝혔다. 2023년 콘서트 오페라 공연 때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극적인 상황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무대에서 음악이 상당히 명확하게 드라마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2024년 전막 오페라 공연에서는 이야기의 갈래를 보다 확실히 정리해 더욱 높아진 완성도를 보여줬다. 콘서트 오페라와는 달리 구체적인 무대장치와 의상을 갖추어 완벽한 오페라로 거듭났다. 특히 2막 부인 안일양과의 혼례 장면은 비극적 결말이 예정된 이 작품에서 꿈처럼 아름다운 무대였다. 이처럼 오페라를 창작, 공연하면서 공연과 재공연을 거듭하며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은 공연예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또한 이날 오페라에서는 이육사의 따님인 이옥비 여사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다. 어느새 노인이 된 딸이 젊은 아버지의 시가 오페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보러 온 것이다. 한국에서 오페라를 창작하는 목적이 단지 예술성의 고취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이육사는 그의 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1936)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십이성좌 그 슬한 별을 어쩌나 노래하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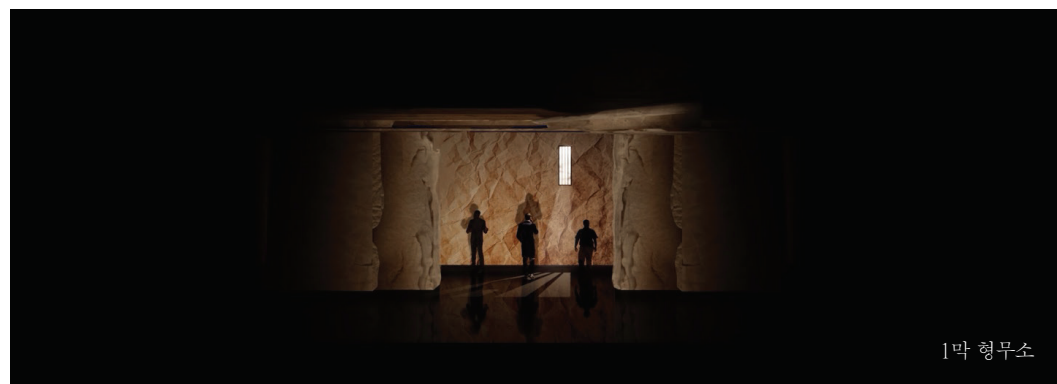
(중략)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것
아롱진 설움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낯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 안에 핏대를 울려가며 마음껏 불러보자

(중략)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 또 한 개 십이성좌 모든 별을 노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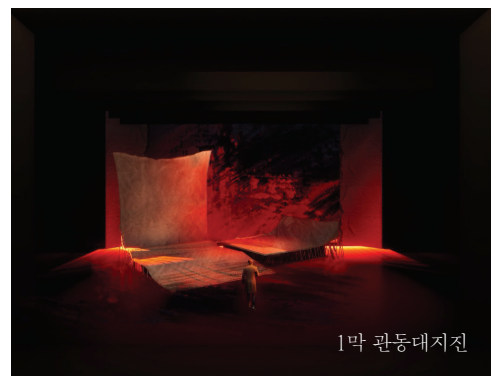
그가 바란 대로, 우리는 한 개의 별을 지켜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오늘,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에서 단 한 개의 별을 위한 이육사의 노래가 아름답고도 뜨겁게 울려 퍼질 것이다.



1막 형무소



1막 동경



1막 관동대지진



2막 혼례(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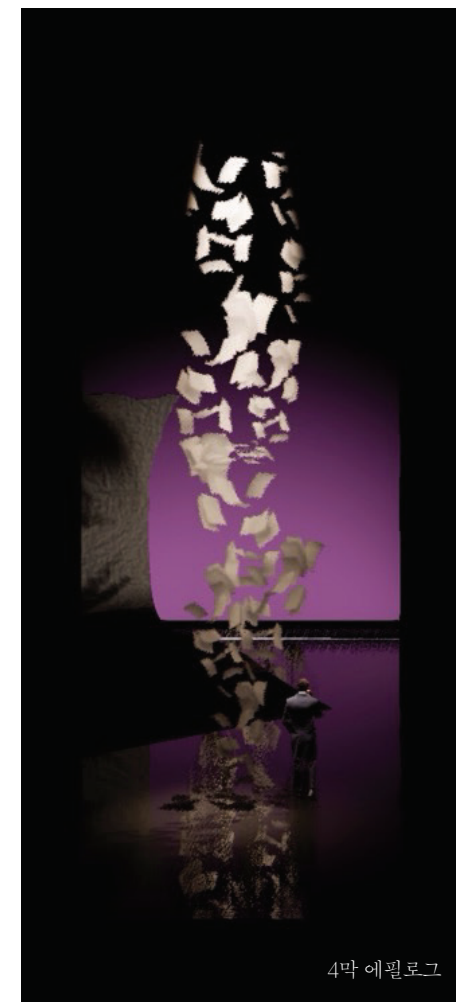
3막 투쟁(만주)



3막 수감,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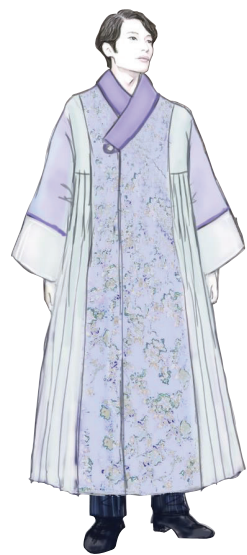
4막 형무소



4막 에필로그



투쟁 이육사



결혼식 이육사



신혼 이육사



문학, 남편 이육사



윤세주



이육사 형



이육사 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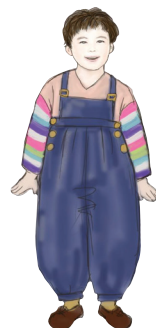
결혼식 안일양



신혼 안일양



안일양



이육사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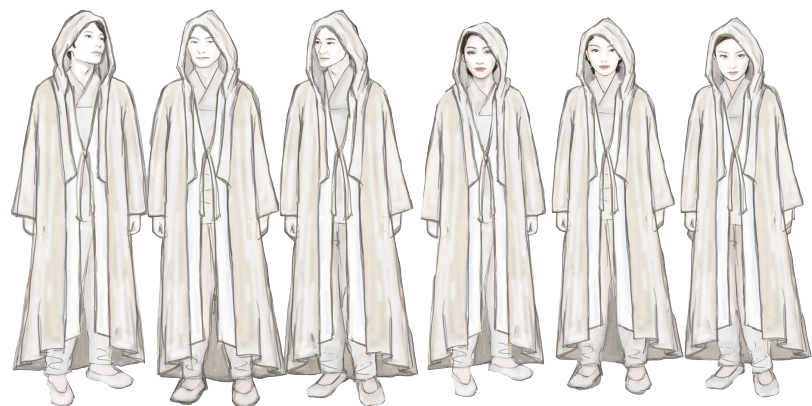
S



고로스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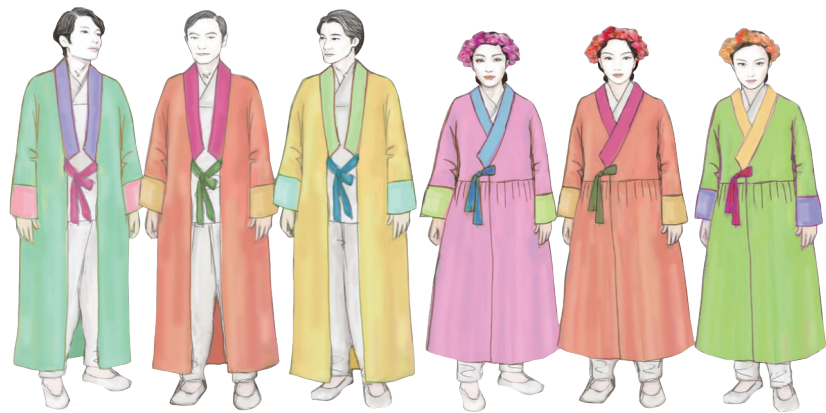
고경사(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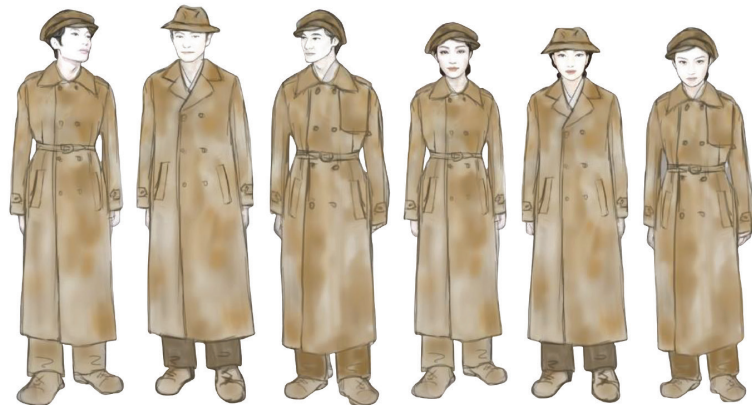
조선인



주례사



마을사람들



독립군



자경단



일본군사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정갑균 Chung Kabgun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 연출과 졸업
-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연출 수업
- 국악오페라<직지> 최초 연출, 독일 칼스루에극장 오페라<나비부인>, 터키 아스펜도스 오페라&발레페스티벌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 동양인 최초 2년 연속 오페라<나비부인> 연출
- 오페라<라 보엠>, <오텔로>, <운명의 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리골레토>, <심청> 등 다수 오페라 연출
-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역임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지휘 Conductor 이동신 Lee Dongsi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작곡가 지휘전공 졸업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오페라 및 오케스트라 지휘와 석사학위 및 연주박사학위 취득
- 창원마산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수석 지휘
- 루빛노타인 오페라하우스오케스트라, 타타르필하모닉,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시립교향악단 등국내외 다수 교향악단 지휘
- 계명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현)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연출 Director 표현진 Pyo Hyunjin

-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
- 토리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공연예술과 최고연주자과정 최고점수 졸업
- 국립오페라단 기획공연 <봄봄, 동승>,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라 보엠>,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투란도트>, 국립오페라단 기획공연 <레드슈즈>, 예술의전당 기획 콘서트오페라 <가면무도회>,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박쥐>, 대전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토스카>,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투란도트>, 서울시문화재단 한강노들섬 클래식 야외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울시 오페라단 기획공연 <토스카> 연출
- 오페라 <지크프리트의 검>, <인형의 신전>, <춘향>, <달이 물로 걸어오듯>, <레드슈즈>, <264, 그 한 개의 별>,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로미오와 줄리엣>, <라 보엠>, <투란도트>, <토스카>, <박쥐>,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갈라 <한국오페라 베스트 컬렉션>, 콘서트오페라 <가면무도회>, <운명의 힘>, <청교도> 등 다수 오페라 연출
- 현)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투쟁 이육사 Ten. Independent army Lee Yooksa Ten. 권재희 Kwon Jaehye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수석 입학 및 졸업, 밀라노 라스칼라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 과정 다플롬
- 프란체스코 알바네제 국제 콩쿨 특별상, 줄리에타 시미오나토 국제콩쿨 1위, 마체레타 오페라 페스티벌상 수상, 보체 아레나 디 베로나 콩쿨 1위
-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아레나 디 베로나, 카타니아 벨리니 오페라극장, 모데나 파바로티 극장, 크레모나 폰키엘리 극장, 비첸 짜 시립극장, 볼짜노 시립극장,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국립 오페라 극장,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 오페라 극장, 독일 칼스루에 극장, 베를린 슈타츠 오페라 등 다수 극장에서 <도둑의 기회>, <투란도트>, <로미오와 줄리엣>, <호수의 여인>, <라 보엠>, <장미의 기사>, <리골레토>, <파우스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디지털싱글 앨범 Simple Gifts 발매
- 현)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투쟁 이육사 Ten. Independent army Lee Yooksa Ten. 노성훈 Rho Seongboon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프란카 마티우치 국제 콩쿨, 주리에타 시미오나토 국제 콩쿨 등 다수 국제콩쿨 1위, 특별상 수상 및 입상
- 한국, 일본, 몽골, 벨기에, 루마니아, 중국, 스페인 등 다수 극장에서 협연 및 콘서트
- 베토벤 '나인 심포니', 드보야 '십자가상의 철언' 독창
- 오페라 <운명의 힘>, <라 트라비아타>, <오텔로>, <라 보엠>, <토스카>, <팔리아치>, <투란도트>, <일 트로바토레>, 창작오페라 <이중섭>, <윤심덕, 사의 찬미>, <비행사>, <춘향전>, <춘향탈육>, <선덕여왕>, <처용의 처>, <264, 그 한 개의 별> 주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문학, 남편 이육사 Bar. *Writer Lee Yooksa Bar.* **김승철** *Kim Seungcheol*

-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 졸업
- 이탈리아 코센자 국립음악원, 페스카라 아카데미, ARAM 아카데미 졸업 및 명예음악학 박사
- 알카모 타란토 외 다수 국제성악콩쿨 우승
-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남자 성악가상, 한국 평론가 협회 성악가 특별상, 금북 문화상,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남자 주역상, 대한민국 오페라를 빛 낸 자랑스런 한국인 상 수상
- 프랑스 디종 오페라극장 오페라 〈나부코〉 해외 주역 데뷔, 로마 오페라, 리세우 극장,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뉴저지 국립극장 등에서 오페라 180여 회 공연
- 국립오페라단 〈시몬 보카네그라〉 국내 주역 데뷔,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한국오페라단 등에서 오페라 〈오텔로〉, 〈리콜레토〉, 〈토스카〉, 〈일 트로바토레〉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교수



문학, 남편 이육사 Bar. *Writer Lee Yooksa Bar.* **제상철** *Je Sangcheol*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미국 템플대학교 오페라과 졸업
- 비올레타 듀폰, 피 카파 랍다 콩쿨 등 다수 콩쿨 입상
- 독일 칼스루에 극장 오디션 국내 최초 합격 및 데뷔
-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올해의 성악가상' 수상
- 국립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경남오페라단, 영남오페라단, 조선오페라단, 뉴오페라 싱가포르, 중국 란저우 극장, 광주시향, 부산시향, 대전시향, 창원시향, 제주시향, 성남시향, 경북도향, 대구시향, 안양시립, 경산시립, 김해시립합창단 등 국내 · 외 다수 극장 및 단체와 공연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콜레토〉, 〈팔리아치〉, 〈라 보엠〉, 〈세빌리아의 이발사〉, 〈카르멘〉, 〈미농 레스코〉, 〈진주조개잡이〉, 〈집시남작〉, 〈박쥐〉, 〈한 여름밤의 꿈〉,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백범 김구〉, 〈선비〉, 〈아씨의 프란치스코〉, 〈처용가〉, 〈명랑선화〉, 〈오텔로〉, 〈심청〉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영남대학교 출강, 대경오페라 단장, 리템션코러스 상임지휘자



안일양 Sop. *Abn Ilyang Sop.* **이윤경** *Yi Yunkyoung*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로마 AIDM, 로마 아레나 아카데미아 졸업
- 중앙 콩쿨 1위, 이탈리아 벨리니 국제콩쿨 우승, 이탈리아/일본 성악콩쿨 요미우리 신문사상
- 이탈리아 음악협회 특별상, 대한민국 음악대상, 2016년을 빛낸 성악가상,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성악가상 등 수상
- 지휘자 정명훈 오디션 발탁 오페라 〈리콜레토〉 주역 데뷔
-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Music of Today' 시리즈 동양인 최초 초청 및 서울 '평화상 시상식',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공연', 베네수엘라 '엘 시스템아 초청독창회', 도쿄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 등 국내 · 외 다수 공연 초청
-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극장, 이탈리아 벨리니 오페라극장, 베이징 센트럴 뮤직홀, 런던 왕립극장, 도쿄 오페라시티, 도쿄문화회관, 히로시마 아스텔극장, 중국 란저우극장,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다수 극장에서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리콜레토〉, 〈사랑의 묘약〉, 〈카르멘〉, 〈세빌리아의 이발사〉, 〈로미오와 줄리엣〉, 〈레드슈즈〉, 〈박쥐〉, 〈메리위도우〉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교수



안일양 Sop. *Abn Ilyang Sop.* **김진솔** *Kim Jinsol*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성악과정 수료
- 이탈리아 꼬모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 석사과정 졸업, 베르첼리 시립음악원 오페라 전문과정 수료
- 이탈리아 카푸칠리 국제 콩쿨 1위 및 청중상 수상, 이탈리아 엔조 소르델로 쿠네오 국제 콩쿨 3위 수상
- 헝가리 미슈콜츠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순회공연 솔리스트
- 이탈리아 꼬모, 임페리아, 독일 베를린, 에센, 랑엔아르겐 등에서 초청 및 신인 성악가 연주
-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파우스트〉, 〈사랑의 묘약〉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한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이원록 Ten. *Lee Wonrok Ten.* **최요섭** *Choi Yosub*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클라우디오 아바도 시립 음악원 졸업
- 경상남도 음악제 성악콩쿨 특별상, 카푸칠리국제콩쿨 특별상 및 다수 콩쿨입상
- 베토벤 '나인심포니', 오라토리오 '메시아', 칸타타 '합포만', '고향의 봄' 솔리스트
- 오페라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팔리아치>, <박쥐>, <사랑의 묘약>, <투란도트>, 창작오페라 <명랑선화>, <늑두> 주 · 조역 출연
- 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객원교수, 경남도립예술단 합창공연단 음악감독



이원록 Ten. *Lee Wonrok Ten.* **이충만** *Lee Chungman*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 이탈리아 파르마 왕립극장 아카데미아베르디안네 졸업
- 동아콩쿨 3위, 국립오페라단 콩쿨 금상, 라벨라오페라단 콩쿨 1위, 아드리아나 말리폰테, 루이지찌누콜리, 보치 인칸토 1위, 부세토 베르디, 리카르도 잔도나이, 클레토 톰바 등 국내 · 외 콩쿨 수십여회 입상
- 사야오페라어워즈 남자신인상 수상
- 국내 및 이탈리아, 독일, 루마니아, 알바니아 헝가리 등 해외 다수 오케스트라 협연
- 오페라 <라 보엠>,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가면무도회>, <일 트로바토레>, <안드레아 세니에> 등 다수 작품 주 · 조역 출연
- 현) 인천예고 출강,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S 영혼의 벗 M.Sop. *S M.Sop.* **최종현** *Choi Jonghyun*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성악과 석사졸업,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바르톨리 마스터 클래스 수료, 이탈리아 페스카라 시립음악원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악대학 솔리스트 액자맨 수석입학및 심사위원 만점졸업
- 이탈리아 캄벌리에또 국제성악콩쿨 입상, 이탈리아 살레노 미리체 국제성악콩쿨 특별상 수상, 제5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음악저널상 수상, 제2회 대구 사야오페라어워즈 여자조연상 수상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전오페라단, 호남오페라단 등 다수 오페라단 주역 출연
- 모차르트 '레퀴엠', 베르디 '레퀴엠', 베토벤 '나인심포니', 말러 '교향곡2번' 전국순회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콘서트탄테 바그너 <발퀴레> 솔리스트 출연
- 영국 로열오페라단-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오텔로> 주역 출연
- 강원예술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외래교수역임
- 현) 선화예술학교, 삼육대학교, 국립오페라단 오페라이카데미 출강



S 영혼의 벗 M.Sop. *S M.Sop.* **김보라** *Kim Bora*

- 영남대학교 성악과 수석 입학 및 졸업
-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최고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 석사과정 최고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C.Abbado 시립 음악원 석사과정 및 보컬 코치 최고점 졸업
- 베르사유 베를리오즈 기념음악회, 이탈리아 밀라노 스포르체스코 성 한인 음악 축제 초청 및 밀라노, 포르투갈, 핀란드, 파비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랑스 등 해외 다수 초청 연주
- 오라토리오 모차르트 '레퀴엠', '스타비트 마테르', 베토벤 '나인심포니' 솔리스트, 대구 오페라하우스 '금난새의 마티네 콘서트' 협연
- 오페라 <박쥐>, <나비부인>, <리골레토>,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텔로>, <루살카>, <파우스트> <라 트라비아타>, <피가로의 결혼>, <수녀 안젤리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심청>, 창작오페라<찬기파랑가 흠모>, <264, 그 한 개의 별> 등 다수 작품 주 · 조역 출연
- 현) 영남대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출강



윤세주 Ten. *Yoon Seju Ten.* 김명규 *Kim Myungkyu*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음악원 졸업
- 니콜라이 기아로프, 질리, 베헤 데 토마지, 벨라노 등 다수 국제콩쿨 입상
- 이탈리아 칸티에리 다르테 오케스트라, 레이크 코모 필하모닉, 대구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 교향악단, 디오오케스트라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 보엠〉, 〈청라언덕〉, 〈라 트라비아타〉,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박쥐〉, 〈심청〉, 〈오텔로〉 등 다수 작품 주 · 조역 출연
- 현) 계명대학교 출강,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고경사, 우두머리, 이육사동생 Ten. 정진환 *Jeong Jinbwan*
Sergeant Go, Boss, Lee Yooksa's younger brother Te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태리 밀라노 아카데미 성악전공 졸업, 이태리 밀라노 치비카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 및 보컬코치 졸업, 이태리 밀라노 음악원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이탈리아 만토바 오페라 〈라 보엠〉 로돌포 역 초청, 밀라노 아비아테그라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 ‘천지창조’, ‘대관식 미사’ 등 다수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출연
-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나부코〉, 〈토스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잔니스키키〉 등 다수 작품 주 · 조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이육사 형 Bass *Lee Yooksa's older brother Bass* 전재민 *Jeon Jaemi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학사 졸업
- 쾰른 국제 음악아카데미 성악 석사 졸업 (만점)
- 독일 쾰른 음악원 국제 콩쿨 2위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수료
- C. 베히슈타인 센터 쾰른 등 다수 공연 초청
- 대구 오페라하우스, 불가리아 소피아 극장, 이탈리아 페라라 극장 등 다수 극장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아이다〉, 〈라 보엠〉,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살로메〉, 〈심청〉, 〈안드레아 세니에〉, 〈잔니스키키〉, 창작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 등 다수 작품 주 · 조역 출연
- 현) Ensemble MSG 솔리스트 및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이육사 아이 *Lee Yooksa's child*

박진서 *Park Jinseo* , 김주아 *Kim Jua*

- 대구오페라유스콰이어 단원



극단 늘해랑
Theater Company Neulbaerang



대표 김예진 *Kim Yejin*



자경단, 독립군, 일본순사
이우락 *Lee Woorak*



자경단, 독립군, 일본순사
박중홍 *Park Jungbong*



자경단, 독립군, 일본순사
박준용 *Park Junyong*



자경단, 독립군, 일본순사
최영재 *Choi Youngjae*



자경단, 독립군, 일본순사
윤제건 *Yoon Jegeon*



자경단, 독립군, 일본순사
한담덕 *Han Damdeok*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악보담당 이상원 홍보담당 김윤주

Violin I 박은지 장세희 김재은 장지은 장혜진 양수빈 이은영 장유진 *Violin II* 박민서 노선균 류가현 정수현 김예성 김현비

Viola 조민지 김효원 조재형 박선영 김예송 *Cello* 김형기 최재영 설예은 박소희 박소현 *Contrabass* 김지정 서한나

Flute 김민주 이한나 *Oboe* 배민주 최규연 *Clarinet* 김민수 전다양 *Bassoon* 조혜연 조윤주 *Horn* 양삼영 김태우 고해원 송상호

Trumpet 전성화 이혜연 *Trombone* 김진욱 이민정 *Bass Trombone* 강준혁 *Tuba* 추지원 *Timpani* 권혜진

Percussion 이희정 허동훈 *Harp* 이은하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환 단무장 배은경 반주자 류지원 임윤지

Sop. 박예람(트레이너) 김채이 김채원 박주은 서아영 신유경 이나은 이다영 정경진 정원정

Alto 권민선 권찬미 김서원 김채운 박수정 박지원 백사랑 이진아 정주현 한혜원

Ten. 이후영(주례자) 박재민 권익현 임진성 이승현 전지훈 서영덕 정도영

Bass 김준년(트레이너) 김대인(동네어른) 박종섭(총무) 문형우 이종하 김주호 주성은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박은혜 Park Eunbye

- 용인대학교 연극학과(무대디자인)졸업,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 연극 '거대한 뿌리', '아이히만, 어둠이 시작되는 곳에서', '햄릿', '7분', '선착장에서', '하얀역병',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꿈속에서는 다정하였네', '엄마이야기', '황금용', '고공정원', '굿닥터', '맹진사댁 경사', '썩크로나이즈', '한여름 밤의 꿈' 무대디자인
- 뮤지컬/소리극 '파과', '페스', '갑오년 단석씨', '내 이름은 사방저', '불우현 몽유록', '춤추는 무성 서원', '시골마을 따릉이' 무대디자인
- 무용 '마디와 매듭', '왕자호동', '가무악철채', '넥스트스텝', 'I'm so tired', '미알' 무대디자인
- 콘서트 '반향:목', '역의음향', '반향:Voice', '종묘제례', '거목', '적벽', '가곡다방', '미스터 피스.황병기', '위험한 실험실' 무대디자인
- 국립극장 페스티벌 '여우락', '서울거리축제-파이프시티-환경디자인', '바라보는 지구:멀티 유니버스-설치미술' 등 참여
- 오페라 <아내들의 반란>, <피렌체의 비극>, <264, 그 한 개의 별>, 오페라갈라<슈트라우스의 밤>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Lighting Design 한희수 Han Heesu

- 예술의전당 2022 SAC 오페라 갈라, 국립오페라단<세빌리아의 이발사>, 대구오페라하우스<토스카>, <264, 그 한 개의 별>, 광주시립오페라단<마술피리>, 부산파크콘서트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예술의 전당<투란도트>, 한강노들섬클래식 오페라<세빌리아의 이발사>, 예술은 갑자다<피가로의 결혼>, <카르멘>, 크누아 정기공연<박쥐>, <상드리용> 조명 디자인
- 전국무용제 '물, 하늘을 그리다' (대통령수상작), 김복희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춤의 향기, 우담바라', 발레블랑 정기공연 발레 '더 룸', 중국 하이난 멀티미디어쇼 '골든판다 스토리', 카자흐스탄 엑스포 한국관 조명디자인
- 연극 '페스카마' (2017 서울연극제 작품상 외 3 수상작), 연극 '고기잡이배_바다로 간 한국사람들' 조명디자인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 겸임교수



영상디자인 Video Design 장수호 Jang Subo

-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예술공학 박사수료, 중앙대 Digital Arts& Technology Application 연구원
- 숭의여자대학교 영상제작과 겸임교수 및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학과 강사 역임
- 2020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선정작가
- 오페라 <아이다>,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라 보엠>, <돈 조반니>, <안드레아 세니에>, <피가로의 결혼>, <운명의 힘>, <레드슈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봄봄 동승> 등 다수 작품 영상디자인
- 현) 하이퍼스테이지 대표, 피버털 미디어 아트 디렉터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유미양 Yoo Miyang

- 독일 함부르크 국립 응용과학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무대의상 학/석사 만점 및 수석 졸업
- 2013 제 7회 더뮤지컬어워즈 의상상 '살짜기웁서예'
- 국립창극단 '정년애', '숙영낭자전', 창극 '보허자', '독감이대 수레노래' 등 다수 창극 의상디자인
- 뮤지컬 '살짜기웁서예', '아르센 루팡', '카르멘', '청이야기' 등 다수 창극 의상디자인
- 연극 '햄릿', '스카펄', '벚꽃동산', '단명소녀 투쟁기', 'M버터플라이', '한 여름밤의 꿈', '파우스트 I+II', '사일런트 스카이', '우리읍내' 등 다수 연극 의상디자인
- 국립현대무용단 댄스필름 '검은돌', 김중학 드라마 '신의' 트레일러, 에버랜드와 중화공룡원 퍼레이드 등 다수 공연 의상디자인
- 서울시 오페라단 <토스카>, 대구오페라하우스 <264, 그 한 개의 별> 등 다수 오페라 의상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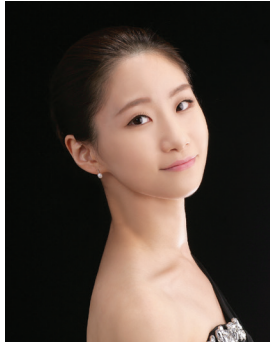
분장디자인 Make-up Design 김언영 Kim Eonyoung

-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코디네이트 디자인학과 미술학 석사
- 프랑스 크리스찬 쇼보 수료
- 제32회 대구연극제 <무대미술상>입상
- 실경수상 창작뮤지컬<부용지애> 분장총괄, 창작뮤지컬<왕의나라> 분장총괄, 도동서원 사액봉행재현행사 분장총괄
- 오페라 <심청>, <264, 그 한 개의 별>,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리날도>, <라 보엠>, <마술피리>, <돈 조반니>, <팔리아치>, <춘향전>, <잔니스키키>, <세빌리아의 이발사>, <카르멘>, <아키스와 갈라테아>, <살로메> 등 다수 오페라 분장디자인
- 연극 '햄릿', '리어왕', '한 여름밤의 꿈', '탈라라하우스', '템페스트', '십이야', '파우스트', '해무' 등 다수 연극 분장디자인
- 현) 에리카메이크업프로덕션 대표



오페라코치 Opera Coach 김민정 Kim Minjeong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전공 졸업
- 이태리 니콜로 피친니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최고과정 오페라코치전공 졸업
- 국립오페라단, 서울대오페라연구소, 성남아트센터, 인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다수 극장 오페라 코치
- 서울대 강사,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 수원대 객원교수 역임
- 현) 숙명여대 외래교수, 웨스턴성악협회 음악감독, 종합예술단체 벨렌아트 대표



반주 *Accompanist* 제갈희진 *Jegal Heejin*

- 대구가톨릭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과, 피아노과 석사 졸업
- 다수의 독창회 및 콘서트 반주
- 오페라 〈라 보엠〉, 〈토스카〉,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카르멘〉 등 음악코치 및 반주
- 대구오페라하우스 〈헨젤과 그레텔〉, 〈투란도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피가로의 결혼〉 등 다수 프로덕션 반주
-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출강, 전문연주자로 활동



조연출 *Assistant Director* 장소희 *Jang Sobee*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창작뮤지컬 '토돌이의 모험', '어린왕자' 등 다수 뮤지컬 조연출
-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 〈아이다〉, 〈돈 카를로〉, 〈사랑의 묘약〉, 〈로엔그린〉, 〈가면무도회〉, 〈라 보엠〉, 〈모세〉, 〈살로메〉 등 다수 오페라 조연출
- 현) 국내 · 외 프로덕션에서 전문 조연출로 활동 중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이육사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십이성좌(十二星座) 그 술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親)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未來)를 꾸며 볼 동방(東方)의 큰 별을 가지자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地球)를 갖는 것
아롱진 설움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낯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地球)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 안에 핏대를 울려 가며 마음껏 불러 보자

처녀의 눈동자를 느끼며 돌아가는 군수야업(軍需夜業)의 젊은 동무들
푸른 샘을 그리는 고달픈 사막(沙漠)의 행상대(行商隊)도 마음을 축여라
화전(火田)에 돌을 쪼는 백성(百姓)들도 옥야천리(沃野千里)를 차지하자

다 같이 제멋에 알맞는 풍양(豐穰)한 지구(地球)의 주재자(主宰者)로
임자 없는 한 개의 별을 가질 노래를 부르자

한 개의 별 한 개의 지구(地球) 단단히 다져진 그 땅 위에
모든 생산(生産)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휘뿌려 보자
앵속(嬰粟)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찬연(餐宴)엔
예의(禮儀)에 꺼림 없는 반취(半醉)의 노래라도 불러 보자

염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神)이란 항상 기록하시니
새 별을 찾아가는 이민(移民)들의 그 틈엔 안 끼여 갈 테니
새로운 지구(地球)에는 죄(罪) 없는 노래를 진주(眞珠)처럼 흠이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 또 한 개의 십이성좌(十二星座) 모든 별을 노래하자.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 | | | |
|--------------|---|----------|--|
| 예술감독 | 정갑균 | 관장 | 정갑균 |
| 지휘 | 이동신 | 공연예술부장 | 김득주 |
| 연출 | 표현진 | 무대시설부장 | 강영구 |
| 무대디자인 | 박은혜 | 공연기획팀 | 팀장 이효진 이한나 박선영 한규리 최서운 김현주 |
| 의상디자인 | 유미양 | 국제교류팀 |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세별 강지윤 |
| 조명디자인 | 한희수 | 홍보마케팅팀 |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
| 영상디자인 | 정수호 | 무대예술팀 | 팀장 박병달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박준환 정진섭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최지희 조현우 |
| 분장디자인 | 김언영 | 시설관리팀 |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
|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 신나경 | | |
| 프로덕션 PD | 한규리 이한나 | 10기 오페라팬 | 게라시멘코 안젤리나 문보미 배민욱 배순욱 오늘 윤정민 이수진 이채현 장성민 추승민 |
| 무대감독 | 김준현 | | |
| 음향감독 | 조원호 | | |
| 무대조감독 | 이심지 | | |
| 무대팀장 | 안남희 | | |
| 조명팀장 | 이정훈 | | |
| 조명오퍼레이터 | 김효민 | | |
| 오페라코치 | 김민정 | | |
| 반주 | 제갈희진 | | |
| 연출팀 | 장소희 조민영 박세은 권하은 | | |
| 자막 및 영상오퍼레이터 | 허성훈 | | |
| 무대크루 | 정종국 구민우 전진룡 심건수 이동원 김우림 최대현 | | |
| 조명크루 | 박나경 황도성 심유섭 이승준 남희원 조운경 | | |
| 음향크루 | 윤선영 | | |
| 의상팀장 | 양지은 | | |
| 의상크루 | 김나현 최지원 신현진 | | |
| 분장팀 | 에리카메이크업프로덕션 김언영(대표) 김현주 김수정 이하늘 이혜연 이혜민 박지현 | | |
| 영상촬영 | 나무엔쥬 | | |
| 사진촬영 | 용스튜디오 | | |
| 무대제작소 | 쇼먼트 | | |
| 의상제작소 | my무대의상 | | |
| 소품제작소 | 미티테이즈 | |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선정·공연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창 / (재)국립오페라단 제작



Erich Wolfgang Korngold

죽음의 도시

Die tote Stadt

제작진 지휘 로타 케닉스 연출 클리앙 사바
출연진 파울 Ten, 모베르도 사카, 신현식 마리/마리에타 Sop, 레이첼 니콜스, 오미선 프랑크/프리즈 Bar, 김경현, 최성규 브리기타 M.Sop, 임은경
렐리에트 Sop, 이경진 뤼시엔 M.Sop, 김순희 빅토랭 Ten, 강도호 알베르 백작 Ten, 위정민 가스통 Pantomime 남상우 무용수 김채희
코리아플로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위너오페라합창단 대구오페라하우스파이어

2025 9. 5(금) 7:30pm - 6(토) 3pm

대구오페라하우스

주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 (재)국립오페라단,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예매 | NOL 티켓 1661-5946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2025.
09. 26.
– 11. 08.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_ 개막작
G. Verdi **Il Trovatore**
일 트로바토레
9. 26 – 27

영남오페라단 제작 /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G. Bizet **Carmen**
카르멘
10. 16/18
11. 2 아얌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_ 글로벌 영아티스트 오페라
W. A. Mozart **Le nozze di Figaro**
피가로의 결혼
10. 24 – 25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제작 _ 콘체르탄테
진영민
마인
10. 28

한·일·중 오페라 갈라 콘서트 _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
The Heart of the East, One Stage
동방의 심장, 하나의 무대
10. 30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_ 폐막작
C. W. Gluck **Orfeo ed Euridice**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11. 7 – 8



주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킨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예매 NOL ticket 1661-5946

LEE BAE - Brushstroke-15, 152 x 102cm, 2024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